

온라인 급성장에 맥 못추는 '유통 공룡' 마트

롯데슈퍼 점단점 등 잇단 폐점 주상복합 재개발 이마트 상무점 매출 증가율 평균 절반 못미쳐

골목상권 위축을 부른 '유통 공룡' 대형 마트들이 온라인 시장 급성장세에 못 이겨 잇따라 주저앉고 있다. 이마트 상무점과 롯데슈퍼 점단점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대형마트들은 새로운 이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 점단점은 오는 30일, 이마트 상무점은 다음달 18일 폐점한다. 이들 부지는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될 예정이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롯데슈퍼 광주점 단점 부지는 빅마트 점단점이 있던 자리로 점단지구 대표 상권으로 꼽혀왔다. 사업자인 롯데자산개발사는 지하 1층-지상

2층엔 롯데슈퍼 등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1층-3층엔 영화관, 지상 4층부터는 아파트 300여 세대(전용면적 84㎡)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

광산구는 "쌍암동 롯데슈퍼주상복합 입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지난 8월 완료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결과를 사업자 측이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 평가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마트 상무점 부지-건물에 대한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마크자산신탁도 주거-비주거 공간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을 세울 계획이다.

지난 2001년 개점한 지 18년 만에 문을 닫는 이마트 상무점은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폐점하는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로 기록됐다. (썬이마트는 올해부터 입차점포 가운데 매출이 부진한 곳 위주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이마트(동광주·상무·광산·봉선·광주점) 11월 1-14일 평균 매출을 분석해 보니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은 3% 늘고, 방문객 수는 2.1% 증가했다.

이 기간은 신세계그룹 18개 계열사가 마련한 대형 할인점 '쓱데이' (2일)로 하루 매출 4000억원대를 기록한 날도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상무점은 다른 점포의 절반에 못 미친 1.2%(객수 0.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는 주변지역 재개발로 70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이마트 동광주점 매출 증가율 5.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 활성화, 롯데마트 상무점과 경쟁 등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인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무점 폐점을 확정했다"며 "지역상권에 맞는 세대별, 가구별 소비패턴과 향후 입주를 계획하는 곳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공략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5곳, 롯데마트 4곳 외에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롯데슈퍼' 8곳(서구 중앙, 남구 봉선·진월, 북구 연제·두암·문흥·첨단, 광산 신가)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2곳(북구 동림동·일곡동) 등이 있다. 롯데슈퍼는 '주말 당일 배송'을 위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금동 인쇄거리 재개발아파트 신축

815가구·29일 모델하우스 개관 문화전당·전남대병원 소재 역세권

광주 인쇄출판거리인 동구 금동에 조합 및 일반아파트 815가구가 들어선다.

〈조감도〉 24일 THE50 센트럴금동지역주택조합 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광주 동구 로부터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상 39층으로 총 815가구 중 1차로 조합원 아파트 394가구를 건설한다. 2차는 일반분양 아파트 421가구를 신축한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29일 서구 마로동 162-85번지 전지랜드 인근에 마련한다.

조합 측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시공사까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쇄출판업이 밀집한 '인쇄거리'는 소음과 주차문제 등 생활민원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도로가 좁아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한 데다 대부분 건물이 낡아 주거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금동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일대는 지하철 1호선이 3분 거리로 역세권에 속하고 주변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 남광주시장이 위치해 아파트 건립의 최고 입지"라며 "광주 최고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동 인쇄거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아파트 신축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동 뉴딜사업은 '중심시가 지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동안 총 300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 문화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KDN·전남대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나선다

해커톤 대회 최우수상 작품 서울시 GT 연구과제 선정

나주 혁신도시에 분사를 둔 한전KDN과 전남대학교가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전KDN은 "지난 6월 '서울시 미세먼지 해커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달리는 미세먼지 청소기, 수소버스'가 서울시 GT(Green Technology) 연구과제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술은 도심 미세먼지 문제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소를 자체 생산한다. 별도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버스 내 설치된 필터로 도로 주변 미세먼지를 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한전KDN 측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배기가스도 배출되지 않으며, 버스에 탑재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예측 및 분석에 활용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한전KDN은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달리는 미세먼지 청소기, 수소버스' 기술을 소개했다. 행사 기간 동안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라는 주제로 전력ICT 기술과 친환경에너지 수소를 이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제시했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이 제안하는 기술은 어떠한 오염원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관측수가 없



박성철(왼쪽) 한전KDN 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에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시연·설명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는 장소에서도 버스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계속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ICT기술을 활용

해 국내 미세먼지 총 발생량 절반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외프로젝트 강화 '광융합산업 로드쇼' 열린다

27~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프로젝트를 강화한 '2019 광융합산업 로드쇼'가 오는 27~28일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광융합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로드쇼에는 광주 등 국내 광융합 기업 106개 사가 참가하며, 18개국 120명

의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또 광융합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 리홍보관, OLED 조명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OLED 선진화 포럼, 광융합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교류 회 등도 열린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광의로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광의로 바이오 체험관에서는 광융합 산업 시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특히, 로드쇼에 참가하는 태국 랍차방 시 부시장, 태국디지털경제진흥원 관계자

등과 태국 광융합 시범설치 실증사업 협약 체결 및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한다. 또 광통신 분야 우즈베키스탄 현지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로드쇼는 지역 광융합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8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치	
19 23 28 37 42 45	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974,643,786	7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58,820,640	59
3 5개 숫자일치	1,621,691	2,140
4 4개 숫자일치	50,000	109,766
5 3개 숫자일치	5,000	1,768,281



광주은행, 내년 2월까지 한겨울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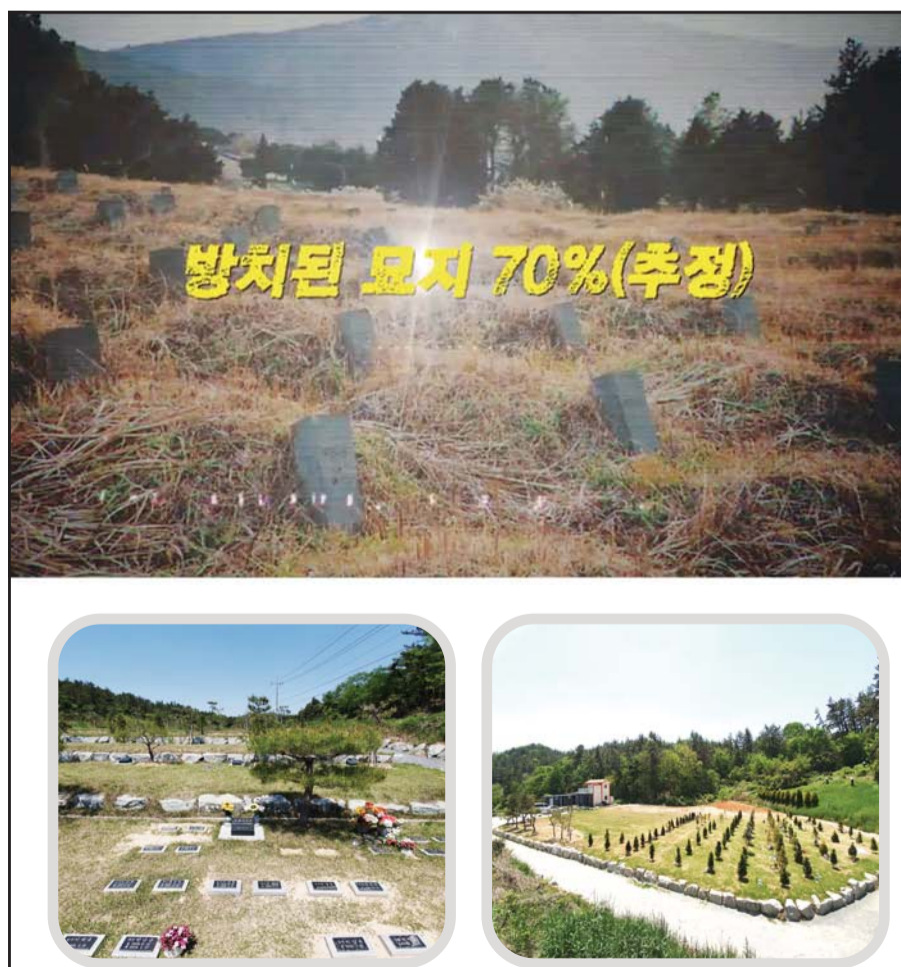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올 겨울 한파와 미세먼지에 대비해 2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겨울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하는 광주은행 한겨울쉼터는 한파 및 폭설에 따른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주·전남 지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식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 한겨울쉼터는 영업점 운영 시간 내에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겨울철 필수품인 휴대용 핫팩과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h3>함평수목장</h3> <p>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p>	<h3>수목장 * 자연장</h3> <p>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p> <p>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p>	<h3>보성수목장</h3> <p>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p>
--	--	---